

“5·18조사위 구성 즉각 나서라”

특별법 개정안 13개월만에 통과
기념재단·5월 3단체 국회 회견
한국당 예산삭감 책동 중단 촉구

5월 단체들을 중심으로 조속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5·18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이후 13개월 만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의 결림돌이던 ‘위원 자격’ 문제를 해결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31일 통과된 만큼 하루라도 빨리 조사위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국회는 5·18 특별법 시행 이래 13개월이 지나도록 진상조사위가 출범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자체에 온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을 즉각 추천해 진상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려는 반역사적 책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20년도 예산을 원안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또 “5·18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자체 진상규명은 물론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내에 특별기구도 설치해야 한다”면서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도 가해자의 양심적인 증언과 제보, 피해자의 신고 접수를 받아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특별기구와 신고센터 등을 설치해줄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5월 단체들이 이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것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는데도 자유한국당이 전직 군인 등 자격미달 위원을 추천하면서 13개월이 지나도록 출범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결국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에게도 위원 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 백승주원의 대표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조사위원 추천을 문제삼아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에 만지를 걸어온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5월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264일째 풍찬노숙의 농성을 계속해 왔다”면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해 불행했던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고 국민대통합의 정신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국가보고서’가 채택될 때까지 온 국민과 함께 그 과정을 엄정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무등산 정상 개방…단풍·역사에 하늘도 비경
지난 2일 무등산 정상 개방행사가 열렸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정상이 개방된 무등산에는 이날 광주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등산객 1만 5000여 명이 찾아 절경을 이룬 가을 단풍과 역사 경관 등 무등산 비경을 만끽했다. 무등산 정상 개방은 2011년 5월 첫 개방 이후 이번이 24번째이다. 이날 개방 구간은 1966년 군부대 주둔 이후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람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였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교도소 1인 수용면적 2㎡ 미달은 위법…국가가 배상”

법원 400만원 배상 판결

구치소나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과밀수용’으로 인해 수용자에게 2㎡에 못미치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이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런 취지로 “국가는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절도와 폭력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구치소와 교도소에

서 복역한 A씨는 수감생활 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수용자는 수용시설에서 취침, 용변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최소한의 수용시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교정의 최종 목적인 재사회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조건이 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따라서 1인당 수용시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이나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수용시설 면적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는 수인한도를 초과해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용된 경위와 과밀수용된 기간, 정부 예산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400만원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일정 규모 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단체, 한빛 1호기 제어봉 낙하 원인 규명 요구 재가동 시험 중단도 촉구

지난 5월 열출력 급증 사고로 멈춰다 가 재가동에 들어간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95만kW급)에서 제어봉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개 격납건물 공극과 2380곳 철판(CLP) 부식이 발견되고 열출력 급증사고까지 발생한 한빛 원자력 발전소 1호기에서 또 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도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수력원자력(주)한빛원자력본부와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범시민 광주비상회의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

후 1시 40분께 한빛 핵발전소 1호기 ‘제어봉 제어능 동력 시험’ 중 제어봉 1개가 낙하했다. 탈핵단체들은 “이번 제어봉 낙하는 기계 설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재가동 시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과정에서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인 5%를 초과한 18%까지 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지됐고, 5개월 뒤 재가동시에도 똑같은 사고가 재차 발생했다는 것은 인적문제가 아닌 기술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수원과 원안

위는 당장 1호기 재가동 시험을 중지하고 사레조사와 육안검사가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빛원전 관계자는 “제어봉 낙하는 제어봉 설비 안에 부유물이 끼면서 간헐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며 “조작을 통해 정상화했고, 원전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31일 오후 1시 30분께부터 발전을 재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6

달돋이

13:29

해질

17:36

달질

23:49

안개 낀 가을 아침

구름 많다가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다.

광주	구름많음	9/19	보성	구름많음	8/18
목포	구름많음	11/19	순천	구름많음	10/20
여수	구름많음	13/18	영광	구름많음	8/19
나주	구름많음	6/20	진도	구름많음	10/19
완도	구름많음	12/19	전주	구름많음	10/19
구례	구름많음	7/19	군산	구름많음	10/19
강진	구름많음	8/20	남원	구름많음	9/19
해남	구름많음	7/20	흑산도	구름많음	14/19
장성	구름많음	6/19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서~북	0.5
남부 먼바다	북서~북	0.5~1.5	북~북동	0.5~1.0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먼바다(동)	북~북동	1.0~1.5	북동~동	1.0~2.0
서부 먼바다(서)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0:10	06:42
	11:54	19:41
여수	07:07	01:11
	21:38	14:41

◇ 주간 날씨

5(화)	6(수)	7(목)	8(금)	9(토)	10(일)	11(월)
10/20	8/20	8/18	8/16	7/16	6/17	9/18

◇ 생활지수

식중독

관심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MUDEUNG PARK HOTEL & RESORT

예약문의 062-226-0011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